

“외국인근로자 촘촘한 의료지원 지속 확대”

전남도, 올해 ‘외국인 안심병원’ 107곳 운영 민·관·학 26개 기관 협의체 구성·협력 강화

전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안심병원을 확대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국인 안심병원을 10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공공의료기관, 이주민 지원단체, 대학 등 민·관·학 26개 기관이 참여해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는 씨젠의료재단, 여수시

가족센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등 4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은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2개 시·군 75개 의료기관을 안심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종합병원 26개소가 모두 참여하고 32개소가 신규 지정돼 총 107개소로 확대됐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3대 의료 취약분야인 산업재해, 감염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국립목포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 국립주병원 등 전문 공공의료기관 3곳도 참여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지원 실무협의체와 연계해 촘촘하고 두터운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외국인주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동강대 건축학과 연희정 교수 건설기술 발전 공로 국토부장관상 수상

연희정 동강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진)가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연 교수는 지난해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건축사공기기술인 연 교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스마트기술 분



야), 전남도 건설기술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건설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연 교수는 ‘한국 건설관리학회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과 ‘대한건축학회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적 성과도 이어가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대촌농협, 농기계 무상점검·수리 활동 트랙터·예초기·동력분무기 등 점검·수리비용 지원도

대촌농협은 최근 본점 주차장에서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촌농협은 현장에서 사용 중인 농기계를 무료로 점검·수리하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서는 중형 트랙터 110여대를 비롯해 예초기, 동력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50여대가 무상 점검을 받았으며, 일부 부품 수리 비용도 지원됐다.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농번기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인사

광주 남구 ◇5급 승진외결 △비서실장 직무대리 황민석 △미래산전력과장 직무대리 진지향

광주서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격차 줄인다

비대면 프로그램 ‘널응원한글’ 운영

광주서구가족센터가 비대면 한글 교육 프로그램 ‘널응원한글’을 운영한다.

광주서구가족센터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언어 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아동지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하나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언어 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터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대기 아동 10명에게 맞춤형 한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널응원한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으로, 가

정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기초 한글 습득을 중심으로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초점을 뒀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반복 학습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간 상호작용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경 광주서구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로 인한 학습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학습을 통해 아동들의 언어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구가족센터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언어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아동지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광주서구가족센터는 광주서구청 등으로부터 송원대 산학협력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발달지원사업을 비롯해 이주언어교실, 기초학습지원, 진로설계기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과 학습·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흥 용산면 파크골프협회, 이웃사랑 실천

성금 100만원 기탁

장흥군 용산면 파크골프협회가 최근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회 회원들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파크골프협회에 깊이 감사하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311@

게시판

- 결론**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 군,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 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 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삼부대로 글로리아에딩홀 1층 라비야홀.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시니어무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서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서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올레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2월 22일)

- 48년생 아래에서부터 꼬임을 주의하라
- 60년생 쉽게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자중하라
- 72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84년생 재물 운 좋지만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
- 96년생 바른 말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 51년생 지나치면 남몰래 보게 될 것이다
- 63년생 자녀의 일에 경사가 생길 것
- 75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한다
- 87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 99년생 이상의 배신으로 속이 상할 운
- 54년생 손실만 있고 이익은 적겠다
- 66년생 조용히 덤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 78년생 쫓고 빼이는 것을 주의
- 90년생 지만심은 금물이니 겸손하라
- 57년생 산에 들어가려면 속세에 관심 꺼라
- 69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81년생 부동산 거래 허침이 보이니 살펴보라
- 93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전을 보일 것
- 49년생 배우자에게 조언을 받아 보라
- 61년생 상대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낫다
- 73년생 돈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통이 따르리라
- 85년생 활동 여부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
- 97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52년생 다투면 손해수, 양보하면 복이 된다
- 6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하다
- 76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희생해 기쁘다
- 8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 55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
- 67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
- 79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 너무 애쓰지마라
- 91년생 진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 58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라
- 70년생 풀리지 않고 문제만 쌓이는 운
- 82년생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금물
- 94년생 조력자를 찾아보라
- 50년생 부동산의 이익이 있으니 멀리 말라
- 62년생 부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74년생 서두르지 마라
- 86년생 마음 비우면 소기의 이익을 취한다
- 98년생 뒷사람과 다툼이 관재 수로 발전한다
- 53년생 방해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 65년생 서서히 운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 77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문서 변경
- 89년생 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 56년생 뿌린 만큼 얻을 수 있다
- 68년생 유혹에도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라
- 80년생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라
- 92년생 대안을 마련하자
- 59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하다
- 71년생 자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 83년생 여러가지 욕망이 가능해 보라
- 95년생 숨겨져 하지 말고 역면 그대로 대하라